

KT, MS와 대한민국 AI 혁신 위한 '자이언트 스텝'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

김영섭 대표-사티아 나델라 CEO, AI-클라우드 분야 전방위 협력 본격 가동

대한민국 AI-클라우드 기술 및 산업 선도 위해 총수조 원 규모 파트너십

한국형 ChatGPT, Phi3.5, Copilot 공동개발해 다양한 산업과 일상 속 AI 저변 확대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AI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KT는 AI-클라우드 분야 전방위 협력 본격 가동하며, 한국형 ChatGPT, Phi3.5, Copilot를 공동개발해 다양한 산업과 일상 속 AI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AI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KT는 AI-클라우드 분야 전방위 협력 본격 가동하며, 한국형 ChatGPT, Phi3.5, Copilot를 공동개발해 다양한 산업과 일상 속 AI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AI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KT는 AI-클라우드 분야 전방위 협력 본격 가동하며, 한국형 ChatGPT, Phi3.5, Copilot를 공동개발해 다양한 산업과 일상 속 AI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및 디지털 분야 전문인력을 경력직을 포함해 올해 최대 1,000명 수준으로 영입하고, 내부 교육 강화와 AI 내재화를 통해 KT의 DNA를 AI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선보인 저력 있는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KT의 성장을 위해 AI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KT가 AICT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으로 빠르게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역량을 빠르게 내재화할 것"이라고 개방형 파트너십 확대의 취지를 설명했다.

KT는 AICT 회사로의 혁신 달성을 위해 전사 차원의 AI 대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KT는 올해 사원부터 임원까지 전 직급에서 AI 등 ICT 전문 인력을 1,000명 규모로 채용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나아가 KT의 AI 리더십(AI)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해 KT 임직원들의 AI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영역까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첫 단계로

KT그룹, AI로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혁신 AICT 컴퍼니 전략 가속

KT그룹이 인공지능(AI) 역량을 바탕으로 그룹의 미디어 사업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확산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AICT 컴퍼니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낸다.

KT는 스카이라이프티브(skyTV), KT 스튜디오지니와 29일 오전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KT그룹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미디어데이에서 KT그룹은 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사업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KT는 KT그룹 미디어 밸류체인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소개했다. skyTV는 개국 20주년을 맞아 AI 보이스로 만든 'EN A' 채널의 새로운 슬로건과 예능 라인업을 공개하고 KT스튜디오지니는 드라마 라인업과 글로벌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KT는 미디어에 특화된 KT만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제작·마케팅·관제 등 미디어 사업 전반의 AX(AI 전환)를 주도할 방침이다.

KT는 콘텐츠 제작하고 TV로 보기는 전 과정에서 AI 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선, AI로 드라마 흥행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오리진 콘텐츠 제작의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또 클립 한 번으로 오래된 영상과 화질을 높이거나(업스케일링), TV의 화면 크기와 화면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영화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데에도 AI 기술을 이용한다. 이외에도 생성형 AI로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거나, 방송이 24시간 끊김이 없이 잘 송출되고 있는지 품질을 관제하고 있다.

KT는 2023년 한 해 동안 skyTV와 KT스튜디오지니를 통해 총 30편의 오리지널 예능과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해 ENA 채널과 '지니 TV'를 통해 공개했다.

KT의 미디어 그룹사는 올해 제작 역량을 극대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능 제작은 skyTV가 주도하고, 드라마는 KT스튜디오지니가 담당하며 K-콘텐츠 알뜰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T는 올해 다양한 장르의 예능 프로그램을 12편을 방영할 예정이다. 이 중 '미녀들의 사랑'은 '미녀들의 사랑'을 방영할 예정이다. '미녀들의 사랑'은 '미녀들의 사랑'을 방영할 예정이다.

"AI로 병원 예약부터 진료까지" KT, 종합병원에 도입한 AI 서비스 본격 가동

디지털 환경이 낳은 노년층 대상 AI로 수월한 예약 지원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 고객센터에 도입한 'KT 에이센(A'cen)'의 'AI 보이스'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 예약접수를 지원한다고 8일 KT 에이센(A'cen)을 소개했다.

KT 에이센(A'cen)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약 지원 서비스로, 노년층 고객이 병원 예약센터로 전화해 본인인증을 마치고 "이비인후과 예약" 또는 "부비동 질환"과 같이 희망하는 진료과목과 진료시간을 입력하면, AI 보이스가 자동으로 예약을 도와준다.

KT는 올해 사원부터 임원까지 전 직급에서 AI 등 ICT 전문 인력을 1,000명 규모로 채용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나아가 KT의 AI 리더십(AI)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해 KT 임직원들의 AI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영역까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첫 단계로

KT는 올해 사원부터 임원까지 전 직급에서 AI 등 ICT 전문 인력을 1,000명 규모로 채용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나아가 KT의 AI 리더십(AI)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해 KT 임직원들의 AI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영역까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첫 단계로

KT, 생성형 AI 활용 우수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미래 100'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100은 KT 임직원들이 AICT 역량을 살려 실제 사업화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해커톤이다.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서버비 예능 구조를 적용해 '공공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100인의 생존 경쟁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미래100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 코엑스 AI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5월부터 4월 말까지 300명의 직원들이 참가해 170여 개의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이후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 중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가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더 독보적인 AI

KT는 Microsoft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AI 시대를 엽니다.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